

영광군 특산품 모싯잎·찰보리 활용 치유농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용역 보고회 피로 해소·명상 도입 방안 제시 주민 25명 치유농업 기본교육도

영광군이 지역 특산품인 모싯잎, 딸기, 찰보리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에 나선다. 치유 농업은 식물과 동물, 자연경관을 활용해 신체적 노화를 수용하고 피로를 푸는 데 목적이 있다. 치유농업은 건강의 회복과 유지·증진을 위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치유농업은 사회적·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면에서 대안 농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치유 대상에 따라 예방·치료·재활 활동을 운영한다. 영광군은 최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농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용역' 중간 보고

회를 열었다. 이 연구용역은 지역 특산자원인 모싯잎, 딸기, 찰보리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간 보고회에는 용역 기관인 영광국제마음훈련원이 발표를 맡고, 김정섭 영광군 부군수, 치유농업 관련 실과장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농업 상품 개발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영광국제마음훈련원은 청년기, 성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자아 정체감 확립과 피로 해소, 명상 등을 도입하는 맞춤형 치유농업을 제시했다. 영광군은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협의·보완 과정을 거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최종 보고회는 다음

달 중순 열린다. 영광군은 지난달 네 차례에 걸쳐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기본교육을 벌였다. 교육 참가자들은 치유 농업에 대한 이해, 치유농업사 제도, 치유농업시설 개발·운영절차 등 이론 수업을 받고, 치유농장 현장견학에 참여했다. 치유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케어팜 서비스'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하기도 했다. 영광군은 농업자원을 활용해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운영을 하며 농촌의 새로운 활로와 소득원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고윤자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식물, 동물, 자연경관 등 다양한 방면으로 치유농업 산업이 적용·발전되는 상황인 만큼 우리 지역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보급, 교육 진행, 지원사업 추진 등 다양한 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광군이 최근 '치유농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치유농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무안군 주거복지 사각지대 9가구 노후 주택 개보수

건축진흥 특별회계 조례 제정 올 1억8000만원 예산 투입

무안군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오래된 주택을 고쳐주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 2017년 3월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를 만들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과 사회 취약 계층의 주거안전에 힘쓰고 있다. 노후 불량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자가 아닌 차상위 가구·저소득층 등 지역민이다. 무안군은 읍·면장 추천을 받아 무안군 건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운영재원으로 삼고 있다. 올해는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모두 9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공사를 벌이고 있다. 구조를 보강하거나 수장공사, 난방공사, 위생설



개·보수 공사를 진행한 무안의 한 주택.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비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주거

목포시 전국체전 기간 차량 2부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

목포시가 13일 개막하는 전국체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차량 2부제(11·19일)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차량 2부제는 전국체전의 성공 지원을 위해 시민 자율참여로 진행한다. 이 기간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각각 운행이 제한된다. 2부제 대상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승합차이다. 목포 전역에서 시행하며, 장애인·국가유공자·긴급용·외교용·보도용·임상부·우아 동승 차량·다른 시도 차량은 제외한다.

목포시는 개항 후 지역에서 처음 주 개최지로 열리는 국가 단위 스포츠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목포시는 10·11일 이틀간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차량 2부제 대신 혼잡을 벌이기로 했다. 홍보는 10일 도청 입구사거리부터 9호 광장까지, 11일 목포역부터 버스터미널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열린다. 800여 명의 목포시 직원과 시민들이 동참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국체전이 목포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목포의 관광 및 문화를 알리고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향해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신안군 내년 8월까지 '옛 사진 모으기' 캠페인

신안군이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일 년간 '신안군 옛날 사진 모으기'를 진행한다. 신안 지역민과 신안군 직원, 향우회, 퇴직 공무원 등이면 응모할 수 있다. 이번 사진 공모는 빠르게 변화하는 신안의 옛 모습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취지로 마련했다. 공모로 모인 사진은 디지털 작업을 통해 누구나 비대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내면 신안군이 1960년대 이전 사진은 3000원을 지급한다. 1980년대 이전 사진은 2000원, 1990년대 이후 사진은 1000원 등으로 차등 지급한다. 사진은 각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역사의 흔적과 삶의



신안군이 내년 8월까지 '신안군 옛날 사진'을 공개 모집한다. 1970년대 안좌면 박지도와 두리 소곡초등학교를 오가던 나룻배의 옛 모습.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모습이 담긴 옛날 사진 모으기 캠페인에 많은 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옛날 사진의 보존으로 다음 세대에서도 우리 지역의 과거 모습이 전달됨에 따라 지역 공동체의 이해와 연대감이 깊어질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안가 곱솔림 방제 사업 완도군, 6년 연속 선정

완도군이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4년 해안가 우량 곱솔림 종합 방제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사진> 사업 대상지는 신지 명사십리와 청산 지리·청송 해변의 곱솔림이다. 군은 2019년을 시작으로 6년 연속 이 사업에 뽑힌 것은 완도의 숲이 아름답고 보존 가치가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자평했다. 군은 가지치기와 토양 개선 작업, 수간 주사와 수관 살포 등을 해 숲을 보전하고 명품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 건립돼 11월 개관 예정인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숲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은재 완도군 산림휴양과장은 "완도가 산림과 해양을 연계한 치유 활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숲을 보존하고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가축 사육밀도 관리...축산 악취 개선

진도군은 축산농장의 환경친화적 운영을 위해 가축 사육밀도 관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가축 과잉 사육은 가축분뇨 발생량을 늘려 축산 악취의 주원인이 된다.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농가라면 축산농가는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인 '축산농가 사육밀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사육밀도 기준은 축산 악취를 개선하고 가축 질병 발생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마련됐다. 축산농가 사육밀도 점검에서는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축사(사육)면적과 축산물 이력제 상 신고

된 사육두수를 비교한다. 기준을 넘길 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농가는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에서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로 축사면적과 현재 사육 중인 가축의 사육두수를 입력해 적정사육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경각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사육밀도 준수 등의 사항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암 이야기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영암도서관 교육 어르신 13명 유아교육기관 순회 책 읽어주기

영암도서관은 10일부터 다음 달까지 '영암 이야기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시범사업(사진)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암도서관의 교육을 받은 65·75세 여성 주민들이 유아 교육기관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영암도서관은 책과 독서로 어르신과 어린이 세대를 연결하고,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실습 교육을 받은 13명의 어르신은 유아 교육기관 16곳을 매주 한 차례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전래 동화와 그림책을 읽어줄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미연(영암읍)씨는 "순주



별인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생각에 기대도 긴장도 된다"며 "내 세대가 성장하면서 함께 들었던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군, 상습 침수 삼산 구림 소하천 정비

해남군이 삼산 구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 2024년 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됐다. 총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되며 삼산면 소하천 중 침수지역인 신리천과 화내2천을 정비하고, 삼산천 합류부에 유수지 및 펌프장을 설치한다.

침수위험지구 가등급인 삼산면 총리 일원 하천은 홍수 때 하천 범람에 의해 상습적으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다. 농경지 95ha를 비롯해 78세대 주택·주민, 54동의 건물에 대한 자연재해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